

1월 14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1월 14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뉴욕증시, 실적우려에 혼조 [다우: 8,448.56pt (-0.3%)	뉴욕증시가 13일(현지시간) 기업실적 우려감으로 혼조세로 마감했음. 유가반등에 힘입어 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였지만 `어닝시즌` 도래로 기업들의 부진한 실적이 적지 않은 부담을 미쳤음.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올들어 첫 연설을 통해 "미국경기 회복 타이밍이 불투명하다"는 악재성 발언과 함께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부양책이 미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란 호재성 코멘트도 내놓으면, 주식시장 혼조세에 일조했음.
씨티-모간스탠리 합작 합의..	씨티그룹은 주식영업 부문인 스미스바니를 모간스탠리의 주식영업과 합병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으로 5%대의 강세로 마감했음. 특히 씨티그룹은 주식투자와 보험, 은행업무를 망라한 `금융 슈퍼마켓` 모델을 포기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은행업무에 집중할 것이란 관측도 주가강세에 도움을 줬음.
국제유가 옛새만에 반등 [WTI: \$37.78 (+ \$0.19)]	국제유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 가능성으로 옛새만에 반등세를 기록했음. 이 영향으로 에너지주가 전반적인 강세를 기록했음. 알리 알 나이미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장관은 이날 사우디의 2월 원유생산 규모가 석유수출국회의(OPEC)가 작년 12월에 정한 당초 생산목표보다 적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음.
무역적자 대폭 감소..재정적자는 사상 최고	미 상무부가 발표한 작년 11월 미국의 무역적자가 최근 5년래 최저치인 404억달러를 기록했음. 이는 전월 567억달러(수정치)보다 160억달러나 줄어들었고, 마켓워치가 집계한 월가의 전망치(500억달러)보다도 적었음. 반면 미국의 2009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구제자금 집행 여파로 석달만에 5,000억달러에 육박했음. 미 재무부가 발표한 작년 12월 미국의 재정적자는 836억달러를 기록,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미국의 2009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석달만에 4,852억달러에 달했음.
버냉키 "은행 부실자산 일소에 적극 나서겠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이날 영국 런던 정경대에서 올들어 첫 강연을 갖고 금융기관들의 부실자산 일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음. 그는 "부실자산이 은행들의 대출을 가로막고 있다"고 언급하고 "은행들에게 여전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은행 지원 없이는 경기회복이 지속될 수 없다"고 언급, 은행 지원의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中 `언론 공정` 나선다..9조원 투입	중국이 국가 이미지 개선을 위해 주요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자금을 푸는 등 대대적인 언론 공정에 나섬. 1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국가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450억위안(약 9조원)을 국영 CCTV, 신화통신, 인민일보 등에 투입키로 함.

제목	주요 내용
중수출 10년만에 최저 ...2개월연속 감소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중국의 수출이 10년만에 최저치로 추락하면서 2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 중국 해관총서는 13일 지난달 수출은 1천111억6천만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2.8% 감소하고 수입은 721억8천만달러로 21.3% 줄어들었다고 발표.
日 어닝 쇼크.. 中도 1900 무너져	어닝 시즌 불안감에 사로잡힌 아시아 증시가 13일에도 불안한 흐름을 이어감. 일본 증시가 5% 가까이 급락했고 중국 증시도 동반 약세. 어닝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악화된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투자심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 전날 뉴욕 증시가 알코아 실적 악재로 나흘 연속 하락한 점도 아시아 증시에 부담.
유럽증시 5일째 하락	유럽주식시장이 13일(현지시간) 5일째 하락세. 영국 주택판매가 사상 최저수준으로 추락하고 기업실적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투자심리가 위축.
유진그룹, 유진투자증권 지분 매각	유진그룹은 13일 유진기업이 보유한 유진투자증권지분 8.6%를 500억원(주당 1,000원)에 한국종합캐피탈(주)에 매각. 유진그룹은 "최근 불확실한 금융환경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유진투자증권을(경영권 포함)시급하게 매각하기보다는 일부 지분을 매각한 후 시간을 갖고 매각키로 했다"며 "그런 차원에서 일부 지분을 한국종합캐피탈에 매각한 것"이라고 설명. 유진그룹은 이와는 별도로 450억원 규모의 자산에 대한 추가 매각을 협의 중에 있으며, 유진기업에 대한 400억원에 이르는 외부 지분투자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며, 유진그룹은 자산매각과 지분투자 등을 통해 올 상반기에만 총 2,6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두산 "선제적 구조조정 진행.. 현금 2조 확보"	두산그룹은 13일 "현재 테크팩, 주류 등 매각으로 9000억의 현금을 확보하는 등 선제적 구조조정을 진행했으며 지난해 말 현금 보유액이 약 1조5,000억원"이라며 "주류매각대금 5,030억(오는 2월 거래 종결)을 현금보유액이 반영하면 2조원 수준에 달하게 된다"고 밝힘. 이어 "그룹 전체로 영업에서 1년간 벌어들이는 현금(EBITDA 기준)은 2조5,000억 원에 달한다"면서 "연간 금융비용은 약 6,000억 수준에 불과해 금융비용 지출은 25%도 안되는 건전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 아울러 "두산의 사업구조는 발전, 담수 등 수주 사업이 대부분으로, 이미 3년 이상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상의 문제가 전혀 없다"면서 "두산인프라코어 굴삭기의 경우도 SOC 투자의 최대 수혜 기업으로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
하이닉스, 유상증자 청약 경쟁률 0.19대 1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총 3,240억원의 자금을 모집하는 이번 하이닉스반도체의 일반공모 청약 결과 첫날 경쟁률이 0.1903 대 1로 나타났으며, 하이닉스반도체는 이번 유상증자는 청약일은 13~14일, 납입일은 16일이며 총 3,240억원을 모집할 계획.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